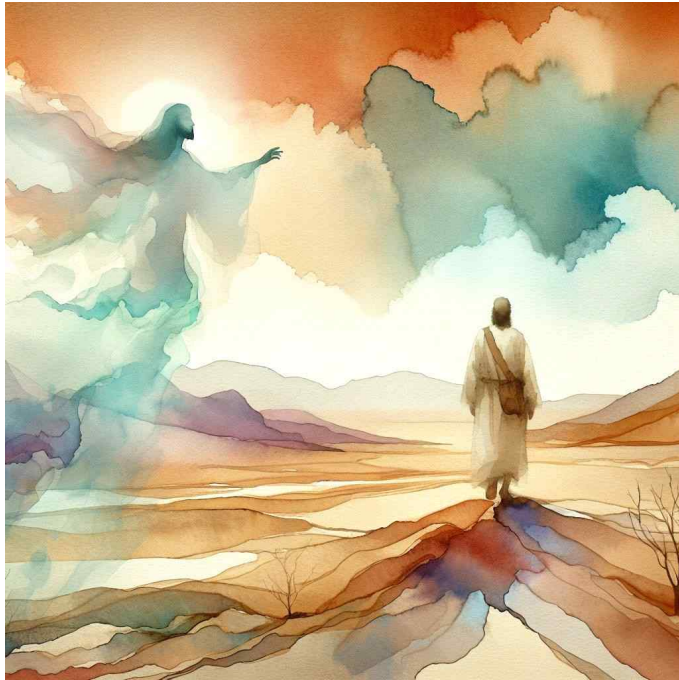




신석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근상

306-190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201-1
3430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601번길 26
(엑슬루아파트 후문, 등마루 공원 앞)

교회 ☎ 932-5478 목사관 ☎ 934-9817 ☎ 사무실 934-9192

홈페이지 shinseok.net 유튜브 [박근상매일성경]

짧은 글 깊은 생각

감사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입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긴 여정 동안 불평과 원망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열 나병환자 중 단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했을 때, 예수님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모두가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는 단 10%만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편에 속해 있을까요?

감사는 선택이며 훈련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란 대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라고 고백했습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도, 자신이 웅장한 궁궐에 사는 것과 비교해 법궤가 천막에 있는 것을 안타깝워하며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며, 그의 집과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위대한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숨 쉬는 것, 가족, 먹을 양식, 건강 모두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저는 그저 감사합니다."라며 감격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해보세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감사의 강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가장 귀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중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8시 2부:오전11시			인도: 박근상 목사				
기	도		다	같	이		
경배찬송		1장		다	같	이	
성서교독		84번 히11장		다	같	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31장		다	같	이
기	도			1부	김실근집사		
				2부	유상수장로		
성경봉독		마태복음4:1-11		인	도	자	
찬	양		내 모든 것을 주께		성	가	대
설	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용기		박근상목사		
기	도			인	도	자	
찬	송		532장		다	같	이
헌금봉헌		헌금함에		다	같	이	
헌금기도				인	도	자	
광	고			인	도	자	
찬	송		기쁨으로 찬양		다	같	이
축복기도				박근상목사			

금주의 말씀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마태복음4:1,2

삼일예배 오후 7시 30분
합심기도
기도/ 손영문 권사
말씀/ 박근상 목사
예배소서교회론(74) 6:16 -믿음의 방패(3)
찬송/ 456장
주기도문

새벽기도회 오전 5시 2층 본당
말씀/ 박근상 목사 **성경- 여호수아 강해**
*주일은 새벽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 교회소식 ■■
- 1. 이번 주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 2. 삼일예배에 교회론 강해가 계속됩니다.
'믿음의 방패'(3)
 - 3. 주보에 자료가 있습니다.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11)
 - 4. 남선교회 야유회-청남대
 - 5. 은퇴원로목사 겨울나기 후원(10가정)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헌금봉투에 '겨울나기후원금'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11월 계획.일정표
25일(화) 중경총회장회 간담회
27일(목) 대덕구기독교연합회 야유회

■■ 말은 청지기 ■■

	안 내	기 도	꽃꽂이
이번주	1층 이흥룡 김장옥	김실근 유상수	송대순/생일 감사
	2층 김현주 이화옥		
	주차안내 이상열 황학성		
다음주	1층 김실근 이길연	김종기 이상열	김장옥노인숙/범사 감사
	1층 김현주 이화옥		
	주차안내 이상열 황학성		

청소담당:2,3층 이번주(11,28) 8구역(천영애)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니다.
다음주(12,05) 9구역(유은희)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니다.

유아부(4층 유아실) 주일 오전11시 사회자 -윤태영 전도사 설교자 -윤태영 전도사 본 문 -요일 5장 4절 제 목 -거듭나야 승리해요	활동 1.11월 암송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2.성탄절 발표회 연습합니다.
유초등부(1층 교육관) 주일 오전9시 사회자 -윤태영 전도사 기도자 -백지는 선생 설교자 -윤태영 전도사 본 문 -요일 5장 4절 제 목 -승리의 출발-거듭나야 승리해요	1.11월 암송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2.11월 한달 감사프로젝트합니다. 매일 수침에 감사한 것 한 개이상 적고 시편 23편 암송하기 3.성탄절 발표회 연습합니다.
중고등부(5층 예배실) 주일 오전9시 사회자 -윤태영 전도사 기도자 -백가는 자매 설교자 -최민관 목사 본 문 -출애굽기 8장 1~15절 제 목 -10가지 재앙(2)	1.11월 암송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2.예배 후에 성탄연습이 있습니다.
청년부(5층 예배실) 주일 오후2시 사회자 -한현구 형제 기도자 -오나연 자매 설교자 -최민관 목사 본 문 -시편 126편 제 목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소서	1.예배 후에 성탄연습이 있습니다. 2.11/29(토) 11시 청년부 찬양 기도회합니다. (5층 벨엘룸) 3.11/30(주일) 대표기도 오자운자매입니다. 4.11/30(주일) 임원진 선거가 있습니다.

공동 예배		
주일낮예배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1시	유년주일학교 주일 1부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9:00
새벽기도회	매일오전5:00	청년부 주일 오후 2시



기적은 정말 일어날까요?

기적이라고 하면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초자연적인 일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거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거나, 폭풍이 멈추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기적은 일어날까요?

"기적"이라는 개념은 보통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특별한 사건을 뜻합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상적인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가 뜨고, 비가 내리고, 식물이 자라고, 물리적 법칙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이런 자연 법칙을 깨뜨리고 일어나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과학과 신앙은 기적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까요? 과학은 관찰과 증거를 기반으로 세상을 설명합니다.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연구하고 규명하려고 합니다. 반면 신앙은 세상을 초월하시는 분이 있음을 믿고, 그 분이 세상에 개입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적은 초월적 존재, 즉 하나님이 자연법칙을 뛰어 넘어서 개입하는 순간이라고 봅니다.

과학 시대에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은 과학과 신앙을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학은 증명 가능한 것을 이야기하고, 신앙은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으니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학은 "어떻게"를 설명하고, 신앙은 "왜"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질문을 던지고, 서로 다른 답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은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왜 필요한지, 산소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왜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과학이 자연의 법칙을 탐구하는 동안, 신앙은 그 법칙을 만든 존재를 탐구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 과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 너머의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많은 미스터리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의식은 어떻게 생겨나는지, 우주의 시작은 무엇인지, 시간과 공간의 본질은 무엇인지 등은 여전히 다 풀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적이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을 믿는 이유

그럼 사람들이 왜 기적을 믿을까요? 기적은 인간에게 희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에 빠졌을지라도 더 이상 방법이 없을지라도 기적을 믿는 사람은 그런중에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기대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을 기대합니다. 기적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는 때에도 그 일을 대신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결코 기대를 놓지 않습니다.

지금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들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믿는 사람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단순히 병이 낫는다는 것을 넘어, 그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가지게 해주고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적은 단순히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변화와 희망을 가져다줍니다.

기독교에서는 기적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사이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 주십니다. 결코 홀로가 아니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기적이란 인간의 시간과 공간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기적을 단순히 초자연적 특별한 사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문점들

기적에 대해 할수 있는 의문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예전에는 기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일어나지 않다"라는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물이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자주 등장하는데, 왜 현대에는 그런 일이 잘 보이지 않을까요?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기적이 단순히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성경 속 기적은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일으킨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적을 베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기적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예를 들면 암에 걸린 사람이 기적적으로 완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도움을 받

아 위기를 넘긴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기적이란 반드시 초자연적인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고,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기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너무 특별한 사건으로만 한정짓지 않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도 기적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기적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

그러므로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와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두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적은 단순히 초자연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 희망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기적은 세상을 초월한 사건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그 뒤에 더 큰 뜻이 있다고 믿나요?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너머의 초자연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존재는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기적은 일어날까요? 답은 당신의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기적을 믿는다면, 당신의 삶은 더 많은 감사와 희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과학과 신앙의 경계에서,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눔식 소그룹 여호수아 8:24~35(11월 25일 본문)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찬양하기 * 주님 말씀하시면(경배와 찬양)

Focus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가 따라야 할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여호수아 8:24~35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이스라엘은 여리고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후, 상대적을 작고 약해 보이는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예상치 못한 패배를 겪었습니다. 이는 병력이나 전략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몰래 취한 일, 즉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거두어진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신 후에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재개하게 하십니다(7:1~8:1). 두 번째 아이성 전투는 단순한 복수전이 아니라, 불순종의 죄를 해결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사로 다시 서는 싸움입니다.

말씀 나누기

1. 관찰과 묵상

두 번째로 치른 아이성 전투 결과는 어떠했나요? 여리고성 전투 때와 달리 아이성 전투에서는 전리품을 어떻게 했나요?(24~27절)

적용과 나눔

말씀에 순종하는 내게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셨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 관찰과 묵상

온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서서 한 일은 무엇인가요?(33~35절)

적용과 나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에 어떤 노력과 기도가 필요할까요?

말씀 다지기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이스라엘은 승리와 함께 전리품을 얻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후 여호수아는 율법을 낭독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이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교훈합니다.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성경은 과거의 기록일 뿐이 아니라, 대대로 변함 없이 믿고 따라야 할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피하며 말씀을 청종하면 약속된 복을 풍성히 누립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함으로, 예비된 승리와 기쁨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1.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르며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공정한 경제 구조가 확립하고 사회 각 영역이 안정화되도록 기도합니다.

2. 인구 대다수가 이슬람교도며, 종교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는 인도네시아에 참된 자유와 구원의 복음이 뿌리내리길 기도합니다(75쪽 ‘땅끝에서 온 편지’ 참조)

*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메모

본문:

제목:

이름:

이번 주간에 꼭 실천해야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신석장로교회는

1984년 5월 17일에 설립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대신)교단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박근상 담임목사는 대덕구기독교연합회 회장, 대덕경찰서경목실장 대전기독교연합회회장, 대전성시화운동본부 공동회장. 부총회장을 역임하고 대전극동방송. 대전기독교방송을 통하여 1만회 이상 매일강해설교를 했고 유튜브[박근상매일성경]을 2000여회 방송중입니다.

■유튜브 [박근상매일성경] ■홈피 shinseok.net

주님의 시간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박근상

시무장로: 김일남 박현철 오종수 유상수 이상선 이상열

협동장로: 김종기 박성훈

교육목사: 최민관 전도사: 윤태영

사무간사: 손영문 건물관리 총무: 오종수

성가대지휘: 최의석 반주: 피아노- 김래아 유혜환 오르간: 윤연정

찬양인도: 최의석

방송.영상: 윤홍규 한현구 중보기도사역팀: 천영임

홈피 관리: 최민관 손영문

이슬비전도대 총무: 노인숙 협동총무 장민채

강단꽃꽂이: 김향례 박종례 손영문 유은희 최금숙 황순화

차량봉사: 남기성 이상열 유상수 주차관리: 김종기 오종수 이상열 황학성

담임목사 방송사역

10 분 설 교	대전극동방송(FEBC)	매 주(월) 오전10시 50분(내가 매일 기쁘게)
주 일 설 교	대전기독교방송 CBS	매 주일 오후5시 (신석의 시간)
오늘의 은혜로	대전기독교방송 CBS	매 주(금) 오후1시 5분-15분
TV방송칼럼	대전CTS	매 주(토) 오전 10시 50분(로템나무)